

■ 중국 상무부, EU를 상대로 무역 투자장벽 조사 개시

- 중국 상무부는 EU가 반보조금 조사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EU를 상대로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함.¹⁾
 - ※ EU집행위원회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해 온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제조기업이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역내 전기차 생산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²⁾
 - 중국 상무부는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및 시행 세칙에 근거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보조금 조사가 무역·투자 장벽인지 조사해달라는 중국 전기기계제품수출입상회의 신청에 따라 7월 10일에 조사에 들어감.
 - 중국 전기기계제품수출입상회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기관차, 태양광, 풍력, 안전검사 등과 관련한 제품이 포함됨.
 - 동 조사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특수 상황 발생 시에는 2025년 4월 10일 까지 연장할 계획임.
- EU는 올해 들어 'FSR'에 근거하여 중국 기업에 여러 차례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였음.
 - 2024년 2월에 불가리아 전기열차 입찰과 4월 3일에 루마니아 태양에너지발전 단지 공개입찰에 참여한 중국기업과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지에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중국기업 등이 그 대상이었음.
 - 4월 23일에는 EU집행위원회가 유럽 소재 중국 자본 기업이 획득한 역외 보조금 현황을 조사 하였음. 관련 기업은 EU가 제출을 요구한 정보에는 핵심 기술 등과 같은 반보조금 조사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EU의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하여 EU측에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EU가 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데다 조사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보호주의라고 비판하였음.
- 홍콩 신문인 난화 조간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EU가 실제 조사 과정에서 중국기업에 더욱 엄격한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지 중국 상무부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보도함.
 - 독일 경제지 Handelsblatt는 중국과 EU간에 무역 분쟁이 존재한다며, EU의 'FSR'이 무역 보호주의 경향이 있어 국제 경제 무역 협력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1) 中國能源網, 2024.7.15.

2) 인사이트, 제24-13호, 2024.7.1.